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5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3일 (음력 1월 8일) 금요일

‘현역 출마’ 광주 서구·동구청장 거취 관심

임우진 구청장, 민주당 공천기준 강화 ‘악재’...무소속 출마說도

국민의당 탈당한 김성환, 민평당 합류가능성 ↑ “지역 민심 중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현직 단체장 출마자인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과 임우진 서구청장의 거취가 국민의당 탈당과 민주당의 예비 후보 검증기준 강화로 인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임우진 구청장은 오는 3월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재선 출마를 공식

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선 행보에 악재를 만났다. 전남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발표하고,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읍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부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임 구청장은 지난 2013년 두 차례 읍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따르면 임 구청장

은 예비후보자 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구청장은 “당이 판단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읍주운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구청장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두 차례 읍주운전에 대해 심판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공천 기준을 강화돼 나까지 적용한다면 수긍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 기준도 그렇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서 “항간에는 민주당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돌더라.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 경우 서구청장 선거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지

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과 무소속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도 거취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전남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이나 민주당에 입당하려는 조만간 결심하겠다”며 “광주의 정신을 지켜가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민평당 합류 가능성이 크지만 김 구청장이 탈당의 이유로 “광주의 정신과 민심을 받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지역 민심과 명분 등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이 민평당을 택하면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과 민평당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이어지며,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에서 가장 뜨거운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애초 22일 전까지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민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유행리를 떠나 오로지 주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통 장 담그기

22일 오전 광주 남구 압촌동 광주공중합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복을 곁들여 치러 입고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어업생산량, 전국의 57%

185만t 생산액 2조6000억

2017년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이 전국의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7년 수산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은 전년보다 40만 1000t이 늘어난 184만 5000t을 기록, 전국(327만 3000t) 점유율이 57%로 전년보다 9%포인트가 늘었다.

이에 따른 생산액은 2조 6천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46억 원이 늘었으며, 전국(7조 4216억 원)의 37%를 차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어업별 생산액은 해면양식어업이 전년보다 4523억 원(37%) 늘어난 1조 6926억 원, 어선어업이 513억 원(7%) 늘어난 8204억 원, 내수면어업이 110억 원(7%) 늘어난 1824억 원이다.

품종별로는 전복 5726억 원, 김 4580억 원, 넙치류 2194억 원, 뱀장어 1719억 원, 낙지류 1064억 원, 참조기 1063억 원, 미역

907억 원, 다시마 811억 원, 전새우류 693억 원, 멸치 686억 원의 순이었다.

해조류의 경우 시설 면적 확대와 양식에 적합한 해양환경 유지로 김 생산액이 전년보다 1166억 원, 미역·다시마가 285억 원이 늘었다.

어패류양식 분야 역시 시설량 증가와 폐사 절감을 위한 양식관리 도입으로 전복 생산액이 전년보다 2311억 원, 넙치가 404억 원, 뱀장어가 148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어선어업은 해양 및 어황 호조로 어획량 비중이 큰 참조기가 전년보다 173억 원, 멸치가 152억 원이 늘었다.

양식업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경 영비 절감 및 수산물 품질 향상 소득품종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양식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고 낙지목장 조성 등 종자방류 등 자원회복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양식생산 2조 원, 수산물 생산 3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임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권의 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은 끝이 안 보인다”면서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만 문재인 정권에서 17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116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쫓아내고 있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 조선왕조 500년사를 보더라도 보복과 탄압에서 자유롭고 명예로운 권력을 마무리한 정권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현 정부의 대미 관계와 가해진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김성태



우원식



김성태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ENERGY 4.0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합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해상풍력, 심령전망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솔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